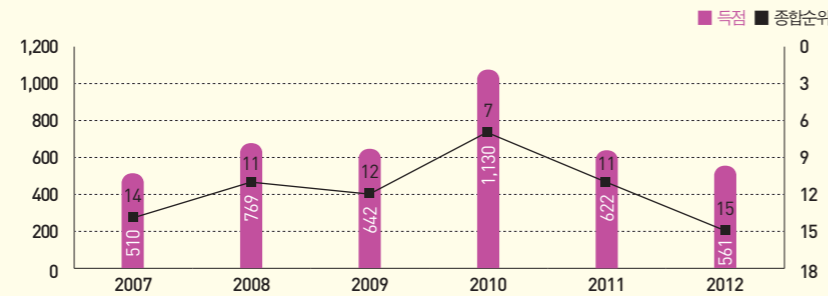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7/75	5/20	5/16	3/18	1/4	3/17
2008	16/75	5/24	5/18	3/17	1/6	2/8
2009	18/75	8/29	5/16	3/29	1/7	1/4
2010	18/82	8/28	4/17	3/14	1/4	2/19
2011	20/82	7/25	6/14	3/17	2/6	2/20
2012	19/72	6/15	6/19	3/15	2/5	2/18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4(510)	1/1/0	10(215)	9(295)	14(0)
2008	11(769)	1/3/0	5(585)	11(184)	15(0)
2009	12(642)	2/2/1	11(88)	8(475)	11(81)
2010	7(1,130)	2/6/1	8(332)	2(690)	14(109)
2011	11(622)	0/4/3	11(220)	8(336)	13(66)
2012	15(561)	1/2/2	11(34)	7(233)	10(294)



20 부산 사격 연맹

현직 회장

김종백  
(주)가보 회장

- 1978.02~1984.09 동아전기통신사 상무
- 1984.10~1990.09 동일전기공사 대표
- 1990.10~현재 (주)가보 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 7·8·9대 회장
- 전 법무부 부산동부지청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
- 부산대학교 AMP 총동문회 제27대 회장
-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현 부산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시민보호지원센터 이사장
- 전 부산해운대경찰서 선진질서위원장
- 전 부산지방고등법원 조정위원
- 현 (사)부산동부 푸른장산장학회 이사장
- 부산 상공회의소 제 18·19·20·21대 의원

사격은 오랜 역사를 지닌 경기종목으로 그 시초는 10세기 말경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활 대신 총을 사용해 수렵과 전쟁을 수행했고, 15~16세기 무렵 과학 발달과 더불어 총이 다량으로 보급되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사격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다.

1907년에는 국제사격연맹이 창설됐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1년 국제사격연맹(ISSF)으로 재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육군연성학교에서 장교 재교육과정에서 사격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식 사격 국가는 8·15 광복 이후 1955년 대한사격협회가 창설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960년 국제사격연맹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제대회 출전은 1956년 제16회 멜버른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효자종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사격연맹은 1963년 3월 17일 부산직할시사격연맹으로 발족했다. 이후 부산 범내골 출신의 이은철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 사격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 은메달,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금·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2관왕을 차지한 KT 소속의 진종오 선수(2012년 선수등록지를 부산광역시로 옮김),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광역시청 소속의 김장미 선수가 부산 사격의 맹위를 떨쳤다.

1999년 4월 부산사격연맹은 제15대 김호익 회장을 맞아 학생 사격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2012년 3월까지 김호익 회장체제로 연맹운영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왔

역대 회장

대수	회장명	재임기간
제1대	서정환	
제2대	정기달	
제3대	문형태	
제4대	정순민	
제5대	현치호	1976.12~1981.01
제6대	조동환	1981.02~1982.06
제7대	한윤규	1982.07~1984.02
제8대	강향희	1984.07~1988.12
제9대	박준호	1989.08~1992.12
제10대	현치호	1993.01~1994.12
제11대	김태봉	1995.07~1995.12
제12대	김훈일	1996.04~1996.08
제13대	김남중	1997.03~1997.12
제14대	이방호	1998.04~1998.12
제15대	김호익	1999.04~2012.03
제16대	김종백	2013.02~현재



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종백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사단법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사격연맹은 사격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선수들의 진학 연계육성을 위해 고등부 사격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김종백 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노후화된 사격장 시설 리뉴얼 중점사업을 목표로 사격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 현직 회장 및 임원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회장	김종백	(주)가보 회장
부회장	이연욱	(주)영도관광사격장 대표
	이영길	남도여자중학교 교사
부회장 및 전무이사	서성동	부산광역시청 사격감독
심판이사	김선덕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사
경기이사	박철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감독
홍보이사	이동건	시호안경원(감만점) 대표
총무이사	배은주	성보인테리어 대표
기획이사	김재현	세강 ENG 대표
재정이사	박영기	부동산 임대업
이사	이기성	부산사격연맹 사무국장
	김만중	구남중학교 교사
감사	변재철	남도여자중학교 교감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16 / 116	-	7 / 34	1 / 29	1 / 2	3 / 51
2011	15 / 106	-	7 / 29	1 / 25	1 / 1	3 / 51
2012	18 / 118	-	7 / 44	1 / 22	1 / 3	4 / 49



####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9(823)	2/2/1	5(289)	-	10(534)
2011	10(610)	1/3/0	6(281)	-	11(329)
2012	6(1,053)	2/2/3	12(48)	11(0)	3(1,005)

